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제1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경배의 찬송 |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
| ◆ 공동기도 | 다함께 |

자비하신 하나님, 서리 내리는 계절에 더욱 맑은 향기를 품는 국화처럼, 모두가 어렵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하늘의 맑은 빛을 드러내는 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던 우울함과 나태와 허영의 옷을 벗겠습니다. 이제 빛과 기쁨과 감사의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진리를 향해 고개를 들면서도 여전히 땅의 인력에 끌려 주저앉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약한 마음에 반석과 같은 의지를 심어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꾸어주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쉽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곧 열쇠요 길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
|------------------|------------------------|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시66:20 |
| ◆ 교 독 문 | 41. 이사야 65장 |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윤정덕 장로 |
| 응 답 송 | 성가대 |
| 찬 송 | 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
| 성경봉독 | 마 9:9-13 |
| | 사 63:15-19 |
| 찬 양 | 성가대 |
| 말 씬 |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
| | 회복의 꿈 |
| 거둠의 기도 |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
| | 다함께 |

| | | |
|-------------------|-------------------------|-----|
| 헌신의 찬송 | 394. 주를 앙모하는 자 | 다함께 |
| 헌금봉헌 | | 다함께 |
| ♠ 봉 헌 송 |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조각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어주고, 방황하는 이들 곁에서 말없이 등불을 밝혀드는 이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내밀한 기쁨을 맛보며 사십시오.

다함께 : 주님, 이제 스스로 어둠을 만들고는 그 어둠 속으로 도피하던 삶을 그치겠습니다. 울면서라도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맑은 종소리가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성지 이야기(3) | 신명기 강해(23) |
| 김기석 목사 | 기도 : 문복순 권사 |

| | | |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 황건호 선생 조병무 장로 | 인도자 한선희 집사 |

| | | | | | | | |
|-----|------|-----|-----|-----|-----|-----|-----|
| 11월 | 영접위원 | 이용한 | 조문규 | 이재구 | 조병주 | 장혜숙 | 백혜숙 |
| | 헌금위원 | 한완식 | 박창운 | 김인걸 | 최종원 | 곽혜자 | 이순정 |

가난의 풍요로움

나의 회교도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바바 무스타파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다.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그는 매일같이 내가 사는 골목 끝,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골판지를 하나 깔고 앉아 있다. 그의 곁에 다가 가서 한담을 나누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어떻게 지내세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가 빠진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주변의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알라신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닭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어린아이의 고함소리, 자동차가 구르는 소리, 녀마주이들끼리 인사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제 주변에서 노래하는 있는 삶과 하나가 되니 제 마음도 함께 노래한답니다. 태양이 따뜻하게 쬐어 주지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지요. 이웃들이 제게 콩도 갖다주지요. 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알라신께 감사하지요.”

어둠에 잠긴 이 얼굴에서는 온화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 빛에는 지혜가 깃들여 있다.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그 무엇에도 소유당하지 않는 인간의 지혜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 쓰레기 양탄자 위에 앉아 그는 놀라운 부를 향유하고 있으며,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는 그 비밀을 찾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땅도 마음도 울타리로 가두지 않았다. 그는 네 벽안에 갇히지 않았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정의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의 소유주도 아닌 그는 만물을 향유한다. 가난 속에서 그는 최고 부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험벗은 인간 무스타파는 보기 드문 권력의 주인이다. 그는 외관을 뛰어넘어 모든 존재들에서 아름답고 선한 그 정수를, 신에 의해 창조된 본래 그대로의 정수를 보는 것이다. 흘러가는 시간 너머로 영원의 울림을 분간해내는 것이다.

병든 녀마주이 노파인 오무 하르비 역시 행복의 원천을 알고 있었다. 쓰레기로 가득 찬 그녀의 오두막집에서 나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았다. 우리는 최근에 노인들을 위한 기숙사를 하나 연 참이었다. 거기엔 좋은 침대와 좋은 음식과 돌봐주는 사

람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제의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날 수 있겠니?” “오 어머니, 함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환희에 찬 기쁨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기쁨은 누추한 오두막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다.

크디큰 사랑을 주고받는다든 것은 너무도 큰 풍요로움으로 영혼을 채우는 일이기에 그 이외의 것은 한낱 망상처럼 보일 뿐이다. 이때 영혼은 원초적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주의하자. 갖가지 쾌락들을 향유하고, 선택된 한 세계의 풍요로움 속에 잠겨든다는 것 또한 큰 만족감을 안겨주는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걸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향락의 소용돌이는 그걸 즐기는 인간에게 그의 가장 내밀한 갈증에 응답하는 기쁨들을 잊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장 내밀한 갈증이란 덧없는 매순간을 자신의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적 욕구들로부터 자유롭고, 활짝 열린 순결한 대지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기적 욕구들은 이상적인 조화와는 대치되는 까닭이다. 이 순결한 대지를 나는 ‘마음의 가난함’이라 부른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인간이 자기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벗고 별거승이가 되는, 그런 심오한 마음에 이르게 된다. 그 근원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존재적 욕구를 만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밧줄에 엮인 채 나아가려는 욕구가 그것이다. 나는 이 보편적 친화의 욕구가 부유한 나라에서 실현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 이루어진다.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일종의 결핍이, 존재의 빈곤이 모습을 드러내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일종의 충만함이, 존재의 풍요로움이 나타난다.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너가 본 사람들, 제3세계의 작업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의 말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는 철야모임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즐겨 듣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쳤다. “여기서는 옷차림이며 외관이며 가면으로부터 해방된 기분이에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순박하고 자연스럽고 정겨운 우정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저는 옷을 갈 배우게 되었어요!”

— 엠마뉘엘 수녀, 《풍요로운 가난》 중에서

숨쉬는 땅

가을걷이를 끝낸 논은 텅 빈다. 누런 벼로 가득 찼던 논이 한순간에 비어버린다. 논은 정성껏 키워낸 자기 자식 같은 벼를 잘라 사람에게 쌀을 준다. 이삭을 떨어낸 벼짚까지 소에게 주고 나면 논에는 아무 것도 없다. 논은 거무스름한 맨살이 드러나도록 완전히 자기를 비운다.

텅 빈 논은 깊이 숨을 고른다. 봄부터 여름을 건너 가을까지 벼와 풀과 농사꾼과 더불어 숨차게 달려왔던 시간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한 숨 한 숨 길게 내쉬며 땅심을 고른다. 그럴 때 논은 한없이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 빈 논을 마주 대하는 나도 숨을 고른다. 더불어 내 마음까지 부드러워지고 푸근해진다. 논은 그렇게 아무 것 없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충만하다.

텅 빈 논에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따라오는 눈이 내려앉는다. 이제 빈 논은 정갈하게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깊은 잠을 청한다. 마치 노년의 인생이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듯, 논은 가만히 다음 봄을 기다린다.

이렇듯 논은 자신을 채웠다가 비우고, 비웠다가 채운다. 그래서 끝없이 살아 숨쉬는 땅이다. 사람은 가도 땅은 산다.

—한승오, <작은 것이 아름답다> 2004년 11월호 중에서

* 모든 것을 내주어 텅 빈 논의 이미지가 어찌면 이리도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이 왜 그리도 제 눈길을 끌어당겼는지 이제 어렵פות이 알 것만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텅 비우셨기에 온 세상 어디에나 가득하십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 | | | | |
| 원로목사 : 박정오 | 소속목사 : 한인철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 | | |
| 원로장로 : 방현복 | 김춘려 | 전영규 | 김성한 | | | | |
| 장 로 : 윤정덕 | 강인식 | 김철수 | 조병무 | 한완식 | 구성실 | 이용한 | 윤석철 |
| 성가대장 : 이용한 | 지휘 : 윤주원 | 반주 : 최윤선 | 안홍숙 | 한선희 | 김수진 | | |
| 관 리 인 : 노용래 | 운전기사 : 오진훈 |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 | |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완식 임정자 조관행 홍선희 박규석 박경선 정완수 김재광 이인웅
 박영희 최종원 이유선 방극숙 임승동 백혜숙 고광승 이춘희 한인철
 조윤숙 염혜영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정원석 김현영 조항범 오현정 정두리 황원순 황자순
 이용희 전영자 최성애 하현철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철수 유영남 김종훈 안경숙 표명화 류준모 김필순
 김용길 최영혜 박영희 전영순 유아부 무명1

생일감사헌금: 이한림 구도헌금: 김기석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 음 장 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박 영 희 | 유 영 남 |
| 베들레헴 | 윤 정 덕 | 정 경 례 | 배 부 례 | 윤 정 덕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곽 권 희 | 정 진 경 | 곽 권 희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문 영 혜 | 박 경 선 |
| 갈 릴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박 애 순 | 진 정 숙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흥 재 | 김 필 순 | 임 창 선 |
| 시 온 | 박 효 선 | 허 정 윤 | 허 정 윤 | 이 인 섭 |
| 엠 마 오 | 최 속 화 | 권 미 정 | 이 갑 재 | 이 기 분 |
| 에 베 소 | 이 순 정 | 한 선 희 | 이 순 정 | 장 혜 숙 |
| 빌 립 보 | 최 종 원 | 이 형 숙 | 이 정 은 | 이 형 숙 |
| 가 버 나 움 | 구 성 실 | 안 흥 숙 | 이 영 옥 | 오 현 정 |
| 나 사 렷 | 백 혜 숙 | 정 옥 영 | 김 희 우 | 정 영 선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유 경 순 | 김 혜 권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이 영 란 | 윤 정 화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조 항 미 | 최 영 혜 |
| 두 란 노 | 안 증 일 | 정 현 주 | 교 회 | 교 회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대강절** : 오늘부터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모시기 위한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잎을 떨군 나무처럼 허례를 벗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에 11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3. **오후집회** : 성지에 다녀온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갈릴리 일대와 요단 동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4. **특별새벽기도회** :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29)부터 12월 25(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6시에 시작합니다.
5. **교사교육** : 금년도 마지막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교육관에서 실시됩니다. 강사는 정부 교육혁신위원장이신 전성은 선생님께서 <교회교육론>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6. **당회** : 12월 12일 오후 2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7. **공천위원회** : 당회를 준비하기 위한 공천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8. **신앙실천** : 밤은 명상과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하루의 첫 부분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 여선교회가 판매한 것갈 판매 수익금(314,000원)은 양평에 있는 <천사의 집>에 전했습니다.
 - * 12월 영접위원 : 윤석철 김인걸 오진훈 임창선 허정운 정경례
 현금위원 : 이용한 방문성 김중수 구성실 이기분 박혜경
 - * 헌화 : 박옥식 전도사 (어머님 추도일)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6:0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